

충남도의회 행자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18건 처리

송호진 기자 | 승인 2020.03.19 19:2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등 민생 조례 심의



제318회 임시회 행자위 심의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내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현·한영신 위원도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hj7017@naver.com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호진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18건 처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등 민생 조례 심의

기사입력시간 : 2020/03/19 [17:42:00]

김상수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 위원(천안2)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미디어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미디어환경 조성이 선행되고 윤리성과 책임성 등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사업 등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현·한영신 위원도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18건 처리

유미영 기자 | 승인 2020.03.19 16:39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등 민생 조례 심의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 위원(천안2)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미디어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미디어환경 조성이 선행되고 윤리성과 책임성 등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사업 등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현·한영신 위원도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특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미영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18건 처리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3.19 18:28

[MBS 내포 = 이준희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 위원(천안2)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미디어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미디어환경 조성이 선행되고 윤리성과 책임성 등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사업 등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현·한영신 위원도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MBS - 한국의 대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충남도의회 행자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18건 처리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등 민생 조례 심의

2020. 03.19(목) 15:39

가+ 가-



[충남/CTN]박순신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지난 18~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 위원(천안2)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미디어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미디어환경 조성이 선행되고 윤리성과 책임성 등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사업 등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현·한영신 위원도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순신 기자 9909pss@hanmail.net [박순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CTN 홈페이지(<http://www.ctnew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ctn@ctnews.kr

☛ 홈 > 뉴스 > 정치 > 충남도행정

충남도의회 행자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18건 처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등 민생 조례 심의

2020년 03월 19일 (목) 15:28:38

정문교 기자 ✉ moongyo64@hanmail.net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과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며 학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 위원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미디어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함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다만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미디어환경 조성이 선행되고 윤리성과 책임성 등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사업 등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현·한영신 위원은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취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앤충청(<http://www.newsncc.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충청메시지

HOME > 지역소식 > 충청권

충남도의회 행자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18건 처리

👤 조성우 | 🕒 승인 2020.03.19 15:55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등 민생 조례 심의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과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며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 위원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미디어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함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다만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미디어환경 조성이 선행되고 윤리성과 책임성 등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사업 등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헌·한영신 위원도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메시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성우

충남도의회 행정자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18건 처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등 민생 조례 심의-

기사입력시간 : 2020/03/19 [15:27:00]

김정화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위원(천안2)은 “열악한상황에 놓인 지역미디어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함은매우 바람직하다”면서“다만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미디어환경 조성이 선행되고 윤리성과 책임성 등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사업 등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현·한영신 위원도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등 민생 조례 심의

충남도의회 행자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18건 처리

이현진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3-19 19:27:03



[충남=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 위원(천안2)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미디어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미디어환경 조성이 선행되고 윤리성과 책임성 등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사업 등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현·한영신 위원도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충남도의회 행정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처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등 민생 조례 심의

기사입력시간 : 2020/03/19 [21:18:00]

이정준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일과 19일에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 위원(천안2)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미디어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미디어환경 조성이 선행되고 윤리성과 책임성 등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사업 등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현·한영신 위원도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18건 처리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등

온양신문사 기자 / ionyang@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19일(목) 16:57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3월 18~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 위원(천안2)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미디어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미디어환경 조성이 선행되고 윤리성과 책임성 등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현 위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사업 등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현·한영신 위원도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url : http://www.ionyang.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53&idx=100825

Copyrights ©온양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